

한글대장경 전산화 '희소식'

문화부 올부터 10년간 40억 지원 용어 통일 기대... 해제·색인도 병행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인터넷이나 CD롬으로 동국대 부설 동국역경원(원장 월운 스님)이 36년 간 우리 말로 옮겨 발간해 온 한글대장경 일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한글대장경 전산화 사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예산이 지난해 12월 26일 확정됨에 따라, 동국역경원은 올해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매년 4억원씩 지원받아 ‘한글대장경 전산화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한글대장경의 전산화는 인터넷이라는 첨단매체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불교의 교리와 정신을 알릴 수 있어, 포교본

로 지적해 왔는데, 이 상태에서 전산화를 하면, 검색 기능의 효율성은 물론 학술적 가치 또한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古)를 번역 할때, 어떤 경전에는 고(古)라고 옮겨다가, 또 다른 경전에는 괴로움, 고민, 고뇌, 쓰러림 등으로 번역하는 등 한자 용어를 여러모로 번역해 왔다.

또한 동국역경원은 개역 과정에서 해제·주석·색인 작업도 병행해, 디지털 한글대장경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철환(동국역경원) 부장은 “전산화 첫 해에는 <아함경>, <대반야경> 등 중요 경전 30여 권을 선정해, 다시 번역하고 편제의 수정 과정을 거친 후, 동국대 부설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 스님)에서 전산화하고, 이 성과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최 부장은 <불교사전>, <불교사전>, <한국불교사전> 등 동국역경원의 기존 성과물을 이번 전산화 사업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고려·신수·남

전대장경 등의 한역대장경과 한글대장경을 함께 읽을 수 있는 ‘통합대장경’을 만드는 데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장에 따르면, 전산본 고려대장경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고려대장경 연구소(소장 중립 스님)와 수차례 논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고려대장경을 한글과 한문으로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통합전산화 환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에 대해 고계는 “이번 기회에 한글대장경과 그 저본인 고려대장경을 함께 볼 수 있는 ‘통합대장경’은 꼭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두 대장경의 일관된 편제와 용어 및 색인어의 통일, 검색 기능 등 영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전산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나 CD롬과 같은 최첨단 매체에 한글대장경을 담아낼 이 사업은 대장경의 독자성을 넓히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신기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u@buddhapia.com)

“훈민정음 음운체계 산스크리트어와 유사”

김봉태씨 ‘...창제의 비밀’ 펴내

집현전 학사들이 하늘, 땅, 사람을삼재, 三才 기본 원리로 삼아 한글을 만들었다지만, 어떤 역사 기록을 통해서도 연구 경위에 대한 정확한 과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집현전 학사들은 한글의 음운체계와 글자류 어떤 자료들을 참고해 창안했을까?

인도 푸네 대학에서 산스크리트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봉태(Seon-tae Kim) 씨가 <훈민정음 창제의 비밀> 대문자 1에서 “산스크리트어 글자인 데워나(Deva)의 음운체계가 훈민정음의 음운체계와 같다”는 이색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훈민정음 초성(聲母) 24자와 홀소리 11자, 데워나(Deva) 자음 35자와 모음 13자를 비교 분석한 김 씨에 따르면, 자음의 경우 훈민정음에 나오는 어금(舌音), 이소리, 혀소리, 입술소리, 반향소리, 반잇소리 등이 데워나(Deva) 자음의 음운체계를 닮았다.

또한 김 씨는 “국어의 자음음소 19자와 데워나(Deva) 자음 19자의 조음방식(發音法)이 소리를 내는 위치와 조음 위치(發音位置)와 혀와 목 입술의 위치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 씨는 “음타락 현상이나 ㄷ구개음화, 전설모음 등 유사 음운현상이 많고 어순도 같아 산스크리트어가 훈민정음 창제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데워나(Deva)는 삼국시대 불교 전래 때 함께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한글 창제에 이어 산스크리트어 <진언집>이 한역되어 나올 정도로 산스크리트어 연구가 활발했다.

허용 한글학회 이사장은 “한글의 인공적인 자체를 만들기 위해 산스크리트를 비롯한 많은 외국어의 음운체계를 참고했을 것”이라며 “산스크리트 글자와의 연관성은 계속 규명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동국대 불교학과 교과목 개발 필요”

이혜숙 박사 주장



“불교계는 교리 연구자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회 현실과 불교를 소통시킬 수 있는 현장 실천가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동국대 불교학부에서부터 석사, 박사과정의 교과목을 중심으로 불교학의 교육 환경을 분석한 이혜숙(동국대 강사·사진) 박사가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불교평론> 5호에 ‘한국 불교학 그 반성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이 박사에 따르면, 연세대 학부 및 대학원 신학과 교과목은 160여 개인 반면 동국대의 경우 80여 개 정도로 수적인 열세에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동국대 불교 관련 교과목은 신학과 사회, 문화를 연계시키는 연세대의 교과목과 크게 비교된다.

다시 말해 동국대 불교 관련 교과목 중에서 ‘한국 불교의 현실인식과 대응’ 나아가 ‘불교의 현대적 고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현실을 담는 교과목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 박사는 “어떤 주제와 방법을 선택할지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연구 방법론’에 관한 교과목은 물론, 불교 윤리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교과목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연세대의 경우, 기독교 윤리 학 ‘방범법’, ‘기독교 윤리 체계’ 등이 개설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박사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적극 반영해 불교학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종욱 기자

중국 산둥성 교주시 의천스님 비석 섰다



◇지나해 12월 25일 중국 산둥성 교주시에 건립된 대각각사 상륙지 기념비 모습.

6세기부터 13세기까지 한국과 중국의 교류 창구였던 산둥성 교주시에 의천(1055-1101) 스님의 비석이 세워졌다.

지나해 12월 25일 산둥성 교주시에 ‘동아시아연구회 중국불적 답사단’ 단장 조영록, 동국대 교수 19명과 교주시 주재 금명동 총영사관, 교주시 이호 시장, 청도대학 한국연구소 박영희 소장, 현지 한인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천 스님의 비석이 제막됐다.

산둥성 교주시의 옛 이름은 판교진(板橋鎮)으로, 당(唐)·송(宋) 시대에 신라 백제인들과 고려인들이 많이 방문했던 곳이다. 1085년 중국에서 불교를 배우고자 물레 상선을 대 의천 스님 역시 이곳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스님은 북송의 수도인 변경(지금의 개봉)으로 가서 불법을 공부하며, 경전을 모으는 등 한 중 불교사상 교류에 큰 공을 담당했다.

산둥성에는 교주시 외에도 의상 스님이 첫발을 내딛은 등주시와 해상왕 장보고의 직산(赤山) 법

화원이 있는 문동시 등이 있을 만큼, 한·중 불교 교류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조영록 교수는 “의천 스님의 비석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단절됐던 한·중의 관계를 다시 잇고, 새로운 문화 교류를 약속하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고 설명했다.

의천 스님의 비석은 대우재단 부설 사회과학원 김준업 이사장이 의해 처음 제안됐고, 교주시가 이를 수용해 제막됐다.

한편 이번 제막식에 초청 받은 조 교수를 비롯해 보광·해주·도입(동국대 교수) 스님, 동림부산해림사 주지, 지연(서울 기원사 주지) 스님 등 동아시아연구회 중국불적 답사단 19명은 행사에 앞서 한·중 경제 문화 교류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졌다.

오종욱 기자

직지사 ‘묘법연화경’ 보물지정

경북 직지사 소장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사진) 완결 7권 2책이 보물 제1306호 지정됐다. 이 경전은 1405년에 대선 신화 스님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편리하도록 중간 크기 글자로 간행한 것이다. 서문에는 고려 우왕의 극락왕생을 위해 발간했다는 내용이 담긴 변상도가 있다. 이어 송나라 급남(汲南) 스님이 쓴 <묘법연화경요해서(妙法蓮華經要解書)>가 나온다. 이 경전은 비록 뒤늦게 인쇄된 후쇄본(後刷本)이지만 상태가 비교적 좋고 변상도 등이 완전해, 당대 법화 신앙의 깊이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오종욱 기자

무형문화재 기록도서 10권 발간

문화재청이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기획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기록도서 10권이 발간됐다.

기록도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을 비롯해 제7호 ‘고성오광대’, 제3호 ‘남사당놀이’, 제18호 ‘동래야류’, 제58호 ‘줄타기’, 제2호 ‘양주별신대놀이’, 제109호 ‘화각장’, 제67호 ‘탕전장’, 제39호 ‘처음무’, 제11호 ‘이리농악’ 등을 다룬 것으로 화산문화 출판사에서 발간했다.

이중 <목조각장>은 사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목불(木佛)이나 이를 봉안한 수미단과 담집, 목어 등의 제작 과정이 상세히 조명됐다.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은 인간문화재들이 고령으로 매년 평균 10여명씩 타계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지닌 기예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는 목적에서 지난 1995년부터 시작했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기록영화 44편과 기록도서 38책, 기록음반 17장 등을 제작했다.

오종욱 기자

제 1기 禪友募集

마음 길들이는 집, 마음 다스리는 곳, 위빠싸나 (如來禪) 전문 수행처.

금분불교진흥원 여래선원
Buddhapia Meditation

서울·장남구 신사동 511-5 02)512-4422 Fax : 02)512-4406
대구·수성구 범어동 292-15 053)744-9009

미안마·Seikantha New - Dagon Yangon

▷ 참고 저서 -
위빠싸나 33일 (우리출판사)
그대들도 나처럼 이 길로 오라 (민족사)
빈손도 내려 놔라 (출판예정)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위를 맞춰야 할 제 3자는 없느니라 법과 자신만을 의지하여 염 없이 정진하라!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

■ 수행일정표

서울	예비기초반	매주 화, 목 - 오전 11:00~12:30
	일반수행반	매주 월, 수, 금 - 오전 10:30~12:30, 저녁 7:30~9:30
	토요정진반	매주 토 - 오후 5:00~9:00(경전 강설 1시간)
대구	일반수행반	매주 화, 목 - 저녁 7:00~9:30
	철야정진반	매월 셋째 토요일 - 저녁 8:00~익일 03:30

토요일 오전반에는 阿耨羅(원시경전의 계승)과 舍羅(정진)를 강설 1시간에 이어 정진

■ 선일 오는 길
서울 센터 : 신사역 6번 출구 전방 120M에서 우측 40M 근
대구 센터 : 수성구청에서 남부 정류장 쪽으로 80M에서 우측 250M 근
미안마 센터 : 양근의 신도사의 뉴·다건에 위치 (직접 문의)

오직 마음을 길들이고 다스리는 선우들을 위한 시인선반입니다. 우선 성내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려 보십시오! 종교나 사상을 뛰어넘어 마음을 길들이는 노력은 거룩한 작업입니다.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려는 선우들만 1월 말까지 모집합니다.
◀ 교재, 회비무료, 단, 천도제, 일반제사 사절 ▶

法山 붓다피아 승주

法華三部經講院

▶ 男·女 통신반 募集 ◀

- 募集期間 ■ 전기 : 1월 5일 ~ 2월 15일 (기간연수)
- 募集課程 ■ 佛經漢字 한문 교육과
- 入學資格 ■ 불교 최고의 경전을 연구 하고자 하는 자
■ 불교 교육자로 새로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教育科目 ■ 무량의경 (漢文本)
■ 묘법연화경 (漢文本)
■ 판, 보현보살 행법경 (漢文本)
■ 특강을 통해 모든 경전 비교연구
- 教育期間 ■ 3년(6학기) 통신반·출강반 동일
- 教育方法 ■ 매주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
■ 월1회 대구 강의실에서 특강
- 卒業惠擇 ■ 수학증서 수여
■ 교직원 자격증 수여(심사후)
■ 법화수행교육원 개원시 적극 지원(심사후)
■ 평생연구과정 입학자격부여(심사후)

자세한 입학 안내서는 응서로 청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崔光水 책임교수

대구광역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우편번호: 701-600)

法華三部經講院
053-952-8711 / 017-501-8711

달마스님상 족자 (병풍) 심우도·반야심경

조사서래의 진리, 지혜의 상징인 달마도

8폭 병풍(비단표구 원제품 300x180cm) 40% DC (뒷면: 반야심경) 가격 52만원

※ 보급, 동향화상분 구함
※ 신중용 직함 (역자 없이 선불가능)
※ 작품이 마음에 안드시는 경우 반품가능

권 천만불가 가정에 한적씩 걸기 운동
장계(滄海)가사, 金靈閣 화백이 직접 그린 작품용 재료 및 통보비에 지나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보급코저 권구 어르신 보내드리니 불자님들과 스님들께서는 좋은 포교방법의 선용용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배달
■ 임금처 (온라인 번호)
농 협 : 148-12-032751
예금주 : 김병구
■ 주문연락처
☎ 080-656-3089
HP 011-9043-3089
滄慧, 金靈閣 協장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 팸플릿을 보내드립니다

◆ 본원에서는 결사아동용기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韓國禪畫研究院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현대결혼연구원을 이끌어 주신 불자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의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건강과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11월 5일 강남 오 피스텔에서 시흥시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이 멀고 활동범위 시간 관계가 좋게 된 점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 승용차 운행·전화약속(30분소요) 영등포역-신계 백화점 정문 역쪽 남부역쪽 1호선 하차 - 기업은행 정문

원장 이영숙
■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히 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직통전화 : 031) 315-5429
대표전화 : 02) 522-5121
핸드 폰 : 018) 277-5592